

민주연 결사 임원 회고

민주열사 박종철 제 7주기 행사식순

1부 : 추모식

1. 개회사
2. 운영위원 대표인사 (- 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
3. 묵념
4. 약력보고 (- 사회자)
5. 추모사 (- 서울대 총학생회장 강병원)
6. 추모의 노래 : '그날이 오면' (- 서울대 메아리)

2부 :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과 관련한 보고 (- 발기준비모임 대표) 및 기념강연 (- 연사 김근태 씨)

3부 : 사례보고 - 문국진 고문피해 사례 (- 문국진 씨 부인 윤연옥 씨)

<소수 운동 추진위원회>

사건(인)의 원(인) 재판정기(일)

크리, 미중, 모공, 유종, 김희아, 김도경, 박정, 김우 <20210-01123> 5 <부록> 1991년 1월 17일

- 1) 1989년 4월 11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발기준비모임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2) 1990년 3월 2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3) 1990년 3월 7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4) 1990년 3월 17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5) 1991년 12월 26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6) 1993년 1월 29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7) 1993년 4월 25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8) 1993년 7월 15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 9) 1994년 1월 11일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회 운영위원 대표인사 (이부영)의 인사말 (1991-01-17)

박정철 열사 약력 보고

- 1) 1964년 4월 1일 부산에서 아버님 박정기 씨와 어머님 정자순 여사의 사이에서 2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남.
- 2)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언어학과 입학. 입학후 언어학과 1학년 대표로 활동.
- 3)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지 지 사당동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구류처분을 받은 바 있음.
- 4) 1986년 언어학과 내의 과 학회 학회장으로 활약.
- 5) 1986년 4월 신당동에서 벌어진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지지}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구속됨.
- 6) 1986년 10월 집행유예로 출소. 출소후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다가 하루 재워준 적이 있던 선배 박종은의 소재를 캐려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갖은 고문수사에 대항하다 87년 신년벽두인 1월 14일 장렬하게 산화함.
- 7) 그 이후 2.7 3.3 투쟁을 거쳐 5.18일 고문진상이 은폐조작되었다는 김승훈 신부의 용기에 찬 폭로로 6월항쟁으로 이어짐.

사법적 및 재판경과보고

- 1) 1988년 4월 6일 기독교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열사 박정철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하고(준비위원장 고 황인철 변호사), 고문살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
- 2) 1989년 3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초혼장 발인을 하여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
- 3) 1989년 11월 7일 민사소송 1실에서 국가배상판결
- 4) 1990년 8월 17일 형사소송 고법에서 강민창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등 4인에 대한 고문진상 은폐조작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여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흥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및 서대문 치안본부 앞 시위.
- 5) 1991년 12월 대법에서 고법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함으로써 형사재판은 고법으로 되돌아옴.
- 6) 1993년 1월 20일 황인철 기념사업회장 앞으로 서거 (회장 공석중).
- 7) 1993년 4월 서울고법은 강민창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징역형 선고. 이로써 형사소송은 완결됨.
- 8) 1993년 7월 15일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도 배상 판결. 여기서 서울고법은 신원권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행위는 국가가 가족중 일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9) 1994년 1월. 고 황인철 변호사의 유지를 잇고, 또 서울대 재학생들의 교내 「추모관」 개관을 확대발전시켜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을 건립코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남.

〈보도자료〉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발신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문의 - 박종운 788-2928)

제목 :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추모식 및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 관계
보도요청

일자 : 1994년 1월 12일

아래와 같이 7주기 추모식 행사를 추진하오니 보도 협조 바랍니다.

1. 마석 모란공원 참배 - 1월 9일 일요일 12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2. 추모식 및 기념강연 - 1월 14일 오후 6시 시청열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1부 : 추모식
 - 2부 :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과 관련한 보고 및 기념강연 (연사 - 김근태 새정치모임 대표)
 - 3부 : 사례발표 - 문국진 고문피해 사례

1. 민주열사 박종철 제 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끝에 숨겨간 고 박종철 열사의 7주기 추모식이 14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1부 추모식은 개회사, 운영위원 대표인사, 묵념, 약력보고, 추모사,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2.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과 관련한 보고

이날 7주기 행사장에서는 1부 추모식에 이어 2부에서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과 관련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원래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 움직임은 고 황인철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다가 암으로 쓰러져 중단된 것인데, 93년엔 재학생들이 그 뜻을 살려 학교 학생회관내에 추모관을 꾸렸고, 93년 10월 16일 추모관 개관식 모교를 방문한 선배들이 나서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본격 추진되게 된 것이다.

특히 4.19의 경우 교정에 4.19탑이 있으나, 4.19 이후엔 몇몇 개인별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뿐 모두를 추모할 규모있는 기념물이 없던 차, 이를 안타까이 여긴 몇몇 동문들의 발의로 1월 8일 프레지던트 호텔 동해식당에서 발기준비 모임을 가진 끝에 기념조형물을 세울 것을 결의하여 이날 그 뜻을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1월 8일 발기준비 모임에는 金道鉉 문화체육부 차관[61 문리], 成裕普 전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61 문리], 李富榮 민주당 최고위원[61 문리], 朴容逸 변호사[66 공대], 李信範 관

경관리공단 이사[67 법대], 梁吉承 성수의원 원장[69 의대], 羅炳湜 풀빛 출판사 대표[70 문리], 李興遠 나라정책연구회 사무국장[72 법대], 白京珍 발트코리아 이사[72 공대], 文國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73 문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의 보고에서는 2월말까지 발기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항쟁기념일인 오는 6월 10일 정식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내년 6월까지 제막을 목표로 일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3. 기념강연 - 연사 김근태 씨

金權泰 씨는 기념강연에서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과 양심수의 전면적인 석방 사면복권을 촉구한다. 그 뿐 아니라 과거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모두에게 호소할 예정이고, 동시에 진정한 문민정부라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4.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 사례발표 - 발표자 : 문국진 씨 부인 윤연옥 씨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고문이 잊혀지는 상황에 경종이 울려진다. 바로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때의 고문후유증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병원비도 마련치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세대 출신의 文國鎭 씨는 다산 보임사건으로 수배중 자수를 했음에도 고문을 가하여 정신이상 상태에 빠져 수차례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문국진(34세) 씨의 부인 尹連玉(32세) 씨는 문민 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라면 마땅히 과거 국가가 행한 고문후유증을 치료하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사상범에 대한 고문용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형우 내무장관이 현재까지 공식사과나 고문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가 고문근절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끝에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7주기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7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오늘 오후 6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85년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았던 김근태씨(새정치모임 대표)의 기념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김근태씨 강연에 뒤이어 「문국진씨와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에서 그동안 조사한 고문피해 사례보고를 문씨의 부인 윤연옥씨가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문피해 사례로서는 최영미씨(34세, 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김복영씨(30세, 86년 4·19 시위때 연행과정과 구치소에서 폭행당함, 연대 정의과 84학번), 김환웅씨(중대 법대 86학번,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때 구속) 등이 있다.

「문국진씨와 함께 하는 모임」의 박대군 총무는 “고문은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

죄”라면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잡을 안재우거나 검찰·경찰의 고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씨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선 유엔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지폭행' 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보상·생계 대책과 아울러 사회복지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의 화해는 가해자인 5·6공의 권력핵심자와 할 것이 아니라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의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국보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일병 1심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희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994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한 「인권하루소식」에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실 때는 꼭 연락해 주십시오(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주1회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이달의 주제>에 실을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탐방·8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삶 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 해본 적이 있는가? 끝을 모르 고 추락하고 있는 느낌, 그러다가 자 신도 모르게 까마득한 밑바닥에서부 터 다시 기어 오르게 되는 힘, 그 힘이 어느순간부터 강하게 모아지는 경험, 그리 고 손잡아주는 이를 만나는 감동... 「문 국진과 함께 하는 모 임」은 이런 과정속에 서 태어났다.

정신병원 의사가 “아이큐 130이 넘 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 을 단단히 할 사람”이라고 평한 젊 은이가 있다. 현재 고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청년의 과거에는 어 떤 일이 있었을까?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사랑하고 돌볼줄 알았던 한 건 강한 젊은이에게 휘둘러진 ‘잠안재 우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이라는 이름의 칼날과 맞선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

그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 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를 만나보았 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문국진씨(34 세)가 아니어서 너무나 당황하고 “고 문이란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하고 뼈저리게 느꼈다는 윤연옥씨(문국진씨의 부인)는 그의 고통을 저버릴 수 없었다. 어렵지만 소중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 러나, 겪어내리라 생각했던 고통은 예상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딸 해 인이를 임신한 7개월 되던 때, 생후 7개월 되던 때를 비롯하여 문씨는 발병과 입원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딸 을 안고 울었고, 끝까지 문씨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품에만 안고 신음 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인한지 그놈들에게 꼭 보여줘야만 한다. 우 리 가정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 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문제가 절실했지만, 고문후유 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병’이라는 것을 인정 하기 꺼려서, 혹은 자포자기 상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도 생각하게 되었다.

윤연옥씨의 분주한 발걸음속에 ‘문 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 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의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 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 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 (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여 부대표 4인, 실무를 담당하는 7 인, 40여인의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들은 신병 치료와 법정 투쟁등을 위한 모금활동과, 고문으로 인한 정신분열에 관한 자료수집과 영문자료 번역, 고문피해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몸으로 뛰는 일등을 기꺼 이 돕고 있다.

이 모임의 상근자가 된 윤연옥씨. 문씨의 대학동기들이 생활비를 담당 하기로 하여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 두고 자신이 직접 고문후유증에 시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활동 초기인 지금,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고문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자 료를 비롯한 고문에 관련된 자료가 국내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외국의 관련단체와 관계를 맺 고 자료를 구해야만 하며, 자료를 구 하더라도 번역하고 분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크다. 앰네스티 아시아분과 담당자가 내한했을 때 면담을 통해 고문후유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받고, 소 식지를 영문화하여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15일에, 고문행위 및 고문후유증 발병후 구호의무 불 이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과 경제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 월 18일에 소송서류와 청량리 경찰 서의 책임회피의 주장을 담은 답변 서가 제출된 1차 재판이 있었다. 아

올려, 29일에 고문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을 냈었다.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밑실에서 이 루어진다는 고문의 특수성으로 인한 증거의 부족과 시효가 지났다는 점 (고문은 시효가 없다 는 국제법에 의해 소 송을 제기), 당시 목 격자인 부모님이 연 로하셔서 세세한 사 함에 대한 기억이 희 미한 점 등이 있다.

그동안 고문피해 사례를 수집해 왔 고, 그 과정 속에서 고문유형의 다양 성과 심각성을 새삼 발견하며 고문 사례 보고(1월 14일, 민주열사 박종 철 7주기 추모식)도 하게 되었는데, 그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 문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부족 하다는 안타까움이 크고, 단순히 경 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고문방지를 위한 제 도적 장치의 마련과 유엔고문방지조 약에의 가입등 구체적인 실천을 이 끌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을 윤연옥씨의 말을 빌어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씨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큰 심적 괴로 움이 되지만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고통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절 실하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초기에 가졌던 의구심(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을 까)이 함께 해주는 분들에 대한 감동 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적인 심정 에서 시작했지만 고문의 문제를 깨 달으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 들에게도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절실히 필 요하다는 점과 그 역할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다.

“우리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강인 한가,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고 문의 썩은 냄새를 치유의 향기로 바 께나가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문국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 사람방 류은숙>

86호(15일자)부터 고문피해사례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신: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찬훈

발신: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박래균(275-0486, 796-8364)

제목: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행사 제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문에 의해 죽임을 당한 박종철 열사의 7주기를 맞아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박종철 열사의 7주기 추도식 행사와 함께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 1월 4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대표 박 정 기

-
1. 일시: 1994년 1월 14일(금) 오후 6시
 2.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3. 행사명: 박종철 열사 제7주기 추도식 및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4. 주최: 박종철 기념사업회,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5. 후원: 행사 취지에 동감하는 제 민주 인권단체
 6. 행사 취지:
 - (1) 박종철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 (2) 고문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 (3)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7. 식순
 - 제1부: 박종철 열사 제7주기 추도식
 - 제2부: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 가. 개회사
 - 나.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활동 보고
 - 다. 고문후유증 사례 보고-최영미, 김복영, 문국진등
 - 라. 강연

사. 결의문 채택

아. 폐회

8. 준비일정: 1월 5일-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

1월 7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실무자 회의

1월 11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4차 대표자 회의

1월 13일까지- 자료집 완료

1월 14일- 신문광고, 행사

9. 준비사항-논의하여 결정

10.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를 함께 하기로 결정하

면 추후 논의를 통해 행사 계획과 준비를 분담하여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 회의 안건 >

0. 인사
1. 경과보고
2. 6주기 행사 이래의 결산보고
3. 회장인선의 건
4. 박종철 열사 7주기 준비상황 심의 및 승인의 건
5. 서울대 민주열사 기념조형물 건립준비상황 심의 및 승인의 건
6. 기타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1. 경과보고

기념회관 준비 상황 - 지법에서의 배상금중 찾을 수 있는 분량으로 용산에 집 마련 부산에 있는 고 박종철 열사의 집을 팔아서 부족한 돈 메꿈 대법 판결 이후 배상금을 기본 토대로 하여 회관마련코자 함.

재판진행상황 - 재판은 고 황인철 변호사, 이석채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이 담당 **형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 강민창등 치안본부 지휘계통의 무죄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에서 그 판결을 기각하여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 신원권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강민창 치안본부장 등이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한 것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신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1994. 1. 7. 22. 안

현재 대법 계류중. 앞으로 일년 이내에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보임.

7주기 준비상황 - 9일 12시 마석모란공원 참배 - 10시 동대문 운동장 앞 주차장

14일 추모식 및 기념강연 - 6: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기념강연연사 - 김근태 새정치 대표

사례발표 - 문국진 고문후유증

예산 - 수입 : 이부영 운영위원 50, 대학동문 및 씨클선후배 150추진

계좌 제일은행 377 - 20 - 146477 예금주 김태호

지출 : 대관료 30만원

안내장 발송 22만원, 리플렛, 플래카드

한겨레 생활광고 30만원

차량전세 15만원

서울대 민주열사 및 희생자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 상황

- 고 황인철 변호사 생존시 추진 중 중단 - 당시 조완규총장의 사당 계획은 유효

- 1993년 서울대 추모관 건립(10.16)

- 1994년 1월 8일 건립추진위 준비모임을 발기할 회합
- 1994년 1월 14일 건립추진위 준비모임 발기예정
- 1994년 6월 10일 건립추진위 정식발족
- 1995년 6월 10일 제막예정
- 연락 담당 : 문국주(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실무 - 박종운(81) 이성호(82) 김찬훈(83) 이남주(83) 송욱(89)

- 준비모임 발기를 위한 회합에의 초청인사 :

김진균 안병직 김덕룡 김도현 김정남 성유보 이부영 현승일 제정구 이현배
장기표 김근태 손학규 김수행 박용일 서경석 김세균 이광택 이신범 양길승
심재식 유인태 이철 나병식 김경남 황인성 김문수 원혜영 이석현 박인제
이석원 이해찬 김주언 문국주 이내경 백경진 서민석 이승우 이성민

(80~120까지) 서민석 이승우 이성민 이정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강민창씨 유죄 확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의 형법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기소되고, 법원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아야 한다.

강민창씨는 1988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88노1234호로 기소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0년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90노1234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은 1991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90노1234호로 확정되었습니다.

강민창씨는 1992년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92노1234호로 기소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3년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93노1234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은 1994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93노1234호로 확정되었습니다.

강민창씨는 1995년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95노1234호로 기소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6년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96노1234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은 1997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96노1234호로 확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발신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제목 :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추모식 및 서울대 민주열사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에 관하여

일자 : 1994년 1월 8일

아래와 같이 7주기 추모식 행사를 추진하오니 보도 협조 바랍니다.

<아래>

1. 민주열사 박종철 제 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는 제 7주기 추모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 | |
|---|
| 1. 마석 모란공원 참배 - 1월 9일 일요일 12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10시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차량 1대 출발) |
| 2. 추모식 및 기념강연 - 1월 14일 오후 6시 시청 옆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부 : 추모식
2부 : 서울대 민주열사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 준비모임 (발기)
3부 : 기념강연 (김근태 새정치 대표) 및 고문후유증 사례발표 |

특히 올해의 행사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운동세력이 개혁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안팎에서 각종의 개혁을 성사시킨 반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 또한 여전히 많이 간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밖에 없다. 이제 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명실공히 사회의 일익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날의 행사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의 하나이자, 고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가 있기 이전 이미 스스로의 고문폭로를 통해 군사정권의 악랄성 반인간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김근태씨가, 한 시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민주개혁세력의 과제를 분명히 하는 연설이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주요한 고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대의를 수호한 고 박종철 열사의 열을 이어받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살해이후 하나가 되어 6월항쟁으로 승화시켰던 자세를 상기하는 올해의 7주기 추모식 행사를 통해, 개혁의 동요를 막고 나아가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갖춰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리라 믿는다.

2. 서울대 민주열사 및 희생자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준비모임 발기

이날 서울대 민주열사 및 희생자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 준비모임이 발족하여,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산 자들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다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였던 서울대에서 반드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1994년 1월 8일 오전 7시 30분에 프래지던트 호텔 동해일식에서 자리를 같이한 서울대 선후배 동문들은 95년 6월항쟁 기념일에 제막을 목표로 94년 6월 10일 추진위 발족, 94년 하반기 및 95년 상반기 문화행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열사 박종철 제 7주기 행사 준비 및 기념조형물 추진상황

1. 제 7주기 행사의 현재 의의

- 1)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고비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대의를 수호한 그 얼을 이어받는다.
- 2) 박종철 열사의 고문살해이후 하나가 되어 6월항쟁으로 승화시켰던 자세를 상기한다.
- 3)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등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뜻을 모은다.
- 4)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과제와 새로이 떠오른 현안들에 대한 의지를 모은다.
- 5) 서울대 민주열사 기념조형물 건립을 위한 뜻을 모은다(건립추진위 준비모임 발기).

2. 행사 추진 및 연락

- 1) 추모식관계 - 박종운(직장 788-2928, 집 375-8390)
김찬훈(전국연합 정책실 747-4364-5)
서울대 총학생회(880-5222) 총학생회장 강병원, 언어학과
☆모금 : 김태호 (제일은행 377-20-146477 예금주 김태호)

***박기사 운영위 1월 5일중 모임(이 최고는 오후 3시 세실?)
이부영, 이태복, 인재근, 김춘옥, 김승훈, 김진균,

- 2) 기념조형물 건립추진 관계 - 문국주(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322-4501)
이성호(민주당 조직국 711-3363)
송 옥(서울대 학생 추사모임 880-5222 교환, 집 584-2948)
***준비모임 발기를 위한 예비모임 : 1월 8일 프레지던트 호텔 동해일식
준비모임 발기 : 1월 14일(국회의원+선배급+실무간사)
*****보도자료(박종운) : 추모식+기념조형물
*****회의자료(이성호) : 취지문 계획서 예산서

- 3) 안내장 - 12월 29일 인쇄 청탁
12월 31일 발송작업(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322-4501)

3. 행사 1 - 마석모란공원 참배

- 1) 사회 - 박종운 * 메가폰, 언급할 말,
- 2) 인쇄물 - 리플렛(1994년 1월 8일까지 부)
- 3) 행사 - 1994년 1월 9일 일요일 12:00
식순 : 가족 제례후 참배
* 중식 - 가족이 떡 준비, 어묵이나 도시락류 주문
- 4) 교통 - 45인승 대형버스 1대(동대문운동장과 시장 사이 공터에서 출발)

4. 행사 2 -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

시간
20
20
30
10

3)일시 장소 - 1월 14일 오후 6시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0개 동거인실
30명씩)
상비시간
기자회견장

4)1부 추모식 행사 : 추모사 - 서울대 총학생회장

5)2부 기념조형물 건립준비위원회 준비모임 발기 보고

6)3부 기념강연 - 연사 : 김근태

고문후유증 문국진 가족

문국진 지금은

현재 문국진씨는 지난 1월 11일자로 신체감정을 마치고 고대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꼭 보름동안의 신체감정 기간 동안 문국진씨는 약을 끊고도 매우 상태가 양호한 듯이 보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이 정도의 상태면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신체감정이 끝나면 통원치료를 하라고 할 정도였으나, 일주일 정도 지나고부터는 다시 발작증세를 보여서 병실에서 난동을 치고 자신의 대변을 먹는 등의 행동을 보여 독방 쇠침대에 감금되어 묶여진 상태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상태가 좋았을 때 문국진씨는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글로 표현하기도 하여 그 글을 본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대 병원의 의사들은 문국진씨의 병 경과를 지켜보지 못한 관계로 당시 남아 있던 약 효과로 그 정도의 상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호전현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아직 2월5일 현재 법원에 신체감정서가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체감정 기간 중의 악화된 증세는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약 두달간 더 병원생활을 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국진씨가 병세가 호전되어 재판정에서도 증언을 하고 이후 생활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온 소식...

그간 해외 인권단체와 연락을 한 보람이 있어서 1월 말에 해외의 두 단체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 인권센터에서는 고문희생자에 대한 의료 지원, 심리적 치료방법, 고문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전문교육,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STIK), 덴마크에 있는 고문희생자를 위한 국제재활센터(IRCTU)를 활용하라고 했으며, 고문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청사항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번호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레빈슨재단(THE MAX AND ANNA LEVINSON FOUNDATION)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권단체로 환경, 사회문제, 폭력 희생자등의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레빈슨재단은 재정지원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고,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이사회에 올린 것인지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THE MAX AND ANNA
LEVINSON FOUNDATION
1411 Paseo de Peralta, Santa Fe, N.M. 87501



Suh Joon Si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40-012 #501 Kiwon Building
404 Hankangro-2ga
Yongsan-Gu, Seoul
Korea

THE MAX AND ANNA
LEVINSON FOUNDATION

PRESIDENT

Carl A. Levinson

DIRECTORS

Donald Bean

Sandy Close

Carol Doroshow

Helen L. Doroshow

Anna B. Levinson

Douglas Levinson

Ellen L. Levinson

Gordon R. Levinson

Lillian A. Levinson

Synda B. Levinson

EXECUTIVE

DIRECTOR

Charlotte Talberth

EXECUTIVE

ASSISTANT

Kristine Schell

January 26, 1994

Suh Joon Si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40-012 #501 Kiwon Building
404 Hankangro-2ga
Yongsan-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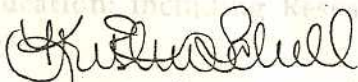
Dear Suh Joon Sik,

Thank you for your recent proposal and your interest in the Levinson Foundation. We will review your material for possible consideration at our next board meeting in June.

In the meantime, please feel free to call our offic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grantmaking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Levinson Foundation.

Please also inform us if you have access to electronic mail, as this might provide an alternate mode of communication. Our electronic mail address is (ctalberth@igc.apc.org). If you do have electronic mail, please send us a message with your electronic mail address.

Sincerely,



Kristine Schell
Executive Assistant

THE MAX AND ANNA
LEVINSON FOUNDATION

1411 PASEO DE PERALTA SANTA FE NM 87501
505 982 3662 FAX 505 982 3665

Environment

\$7,500

November 1, 1993

The Levinson Foundation is a small private foundation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more humane and rewarding society, in which people have a greater ability and opportunity to determine directions for the future.

The following is an attempt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regarding what the Levinson Foundation funds and how to apply for a grant.

Areas of Interest: Our funding is allocated among three categories.

The Environment: including Preservation of Ecosystems and Biological Diversity; Alternativ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oxics; Alternative Agriculture; Environmental Restoration,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Social: including Urban and Rural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ulticulturalism; Human Rights, Youth Leadership and Empowerment; Conflict Resolution and Aid to Survivors of Violence, and Health Care.

Jewish/Israel: including Jewish Culture and Spirituality; History and Education; Eastern and World Jewry; the Israeli Peace Movement,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Israel.

Evaluation of Proposals: Whatever the specific area of interest, we encourage projects which are concerned with promoting community, social justice, a healthy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economy, either by developing alternatives to the status quo or by responsibly modifying existing systems, institutions, conditions, and attitudes which block promising innovation.

We seek people and organizations who combine dedication and genuine concern with rigorous analysis and strategic plans, and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competence. We accept proposals from any and all locations but prefer projects with broad implications for society. Proposals for seed funding, start-up, and small organizations are especially encouraged.

Activities: We consider the following types of activities to implement the goals of the projects:

Public Education: including Research and Analysis; Publications; Conferences; Media, and Workshops.

Community Organizing: including Grassroots Staff, Overhead, Equipment and Program Support; Start Up and Strategic Planning; Coalition-Building, and Leadership Training .

Advocacy: including Policy Reform; Client Representation; Appeals, Litigation, and Citizen Diplomacy.

Grants Awarded October, 1993

	<u>Environment</u>
Tonantzín Land Institute Albuquerque, NM General Support for Organizing on Land, Water, Youth, and Cultural Issues Among Traditional Peoples of the Southwest	\$7,500
Taos Valley Acequia Association Taos, NM Support for Mediation of Water Rights Involving Traditional Users in a Statewide Adjudication	\$7,500
Atrisco Land Rights Council Albuquerque, NM General Support for Community Organizing to Preserve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Heirs and Descendants of the Atrisco Land Grant in New Mexico	\$7,500
Nuclear Free America/National Environmental Council of Native Americans Baltimore, MD Program Support for Nuclear Free Native Lands Project Collaboration	\$8,000
Southwest Indigenous Uranium Forum Gallup, NM Documentation of the Effects of Exposure to Radiation on the Miners, Millers, and Communities of Laguna Poma Pueblos	\$4,000
Sierra Rainforest Alliance, Sierra Madre Program Tucson, AZ Support for CASMAC (Consejo Asesor Sierra Madre) to Addres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 Ejidos of the Sierra Madres, Mexico	\$8,000
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 Eugene, OR Promotion of Electronic Access to Leg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to Advocates in Africa and Central America	\$8,000
Environmental Law Center, Inc. Eugene, OR Non-profit Law Firm Representing Grassroots Clients and Training Public Interest Attorneys in Oregon	\$8,000
River Conservation Studies Pagosa Springs, CO Wildlife Protection Collaborative Project Involving Scientists, Authors, Students and Communities	\$8,000
Wildlands Project Tucson, AZ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Conservation Biology Proposal for North America	\$10,000
Conservation Council Santa Fe, NM Assistance to Citizen's Groups to Create Map-Based Inventories and Forest Conservation Plans in the Southwest	\$7,500
Project Bozeman, MT Support for Group Working to End the Animal Damage Control Program and Promote the Predator Species and Wild Ecosystems	\$7,500
North Environmental Project Missoula, MT Cooperation Cooperative and Demonstration Project on Headwater Streams in Montana	\$5,000
Quality Project Santa Fe, NM Organization Dedicated to a National Dialogue on Sustainability	\$3,500
Green Institute Snowmass, CO Promotion of Alternative-Fuel Cars	\$10,000
Reef Alliance Chappaqua, NY Support for Project in Jamaica to Preserve and Protect Coral Reef	\$5,000

Total for Environment \$115,000

Grants Awarded October, 1993

	<u>Environment</u>
<u>Tonantzín Land Institute</u> Albuquerque, NM General Support for Organizing on Land, Water, Youth, and Cultural Issues Among Traditional Peoples of the Southwest	\$7,500
<u>Taos Valley Acequia Association</u> Taos, NM Support for Mediation of Water Rights Involving Traditional Users in a Statewide Adjudication	\$7,500
<u>Atrisco Land Rights Council</u> Albuquerque, NM General Support for Community Organizing to Preserve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Heirs and Vencinos of the Atrisco Land Grant in New Mexico	\$7,500
<u>Nuclear Free America/National Environmental Council of Native Americans</u> Baltimore, MD Program Support for Nuclear Free Native Lands Project Collaboration	\$8,000
<u>Southwest Indigenous Uranium Forum</u> Gallup, NM Documentation of the Effects of Exposure to Radiation on the Miners, Millers, and Communities of Laguna and Acoma Pueblos	\$4,000
<u>Arizona Rainforest Alliance, Sierra Madre Program</u> Tucson, AZ Funding for CASMAC (Consejo Asesor Sierra Madre) to Addres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jidos of the Sierra Madres, Mexico	\$8,000
<u>E Law: 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u> Eugene, OR Expansion of Electronic Access to Leg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to Advocates in Africa and Central America	\$8,000
<u>Western Environmental Law Center, Inc.</u> Eugene, OR Start-up for Non-profit Law Firm Representing Grassroots Clients and Training Public Interest Attorneys in the West	\$8,000
<u>Round River Conservation Studies</u> Pagosa Springs, CO San Juan Grizzly Protection Collaborative Project Involving Scientists, Authors, Students and Communities	\$8,000
<u>The Wildlands Project</u> Tucson, AZ General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Conservation Biology Proposal for North America	\$10,000
<u>Forest Conservation Council</u> Santa Fe, NM Technical Assistance to Citizen's Groups to Create Map-Based Inventories and Forest Conservation Proposals in the Southwest	\$7,500
<u>Predator Project</u> Bozeman, MT General Support for Group Working to End the Animal Damage Control Program and Promote the Protection of Predator Species and Wild Ecosystems	\$7,500
<u>Wounded Earth Environmental Project</u> Missoula, MT Start-up for Restoration Cooperative and Demonstration Project on Headwater Streams in Montana	\$5,000
<u>The Sustainability Project</u> Santa Fe, NM Development of Organization Dedicated to a National Dialogue on Sustainability	\$3,500
<u>Rocky Mountain Institute</u> Snowmass, CO Public Education about Alternative-Fuel Cars	\$10,000
<u>Global Coral Reef Alliance</u> Chappaqua, NY Project Development in Jamaica to Preserve and Protect Coral Reef	\$5,000

Total for Environment \$115,000

Grants Awarded October, 1993

Jewish/Israel

<u>Americans for Peace Now/Shalom Achshav</u> New York, NY Campaign to Sustain Popular Support for the Peace Accords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40,000
<u>Project Nishma</u> Washington, DC Opinion Poll of American Jewish Leaders to Reflect Support for the Peace Accords	\$15,000
<u>IPCRI: Israel/Palestine Center for Research and Information</u> Jerusalem, Public Meetings in Israel Co-Sponsored by Palestinians and Israelis to Promote the Peace Accords in the Media	\$6,000
<u>Jerusalem Media and Communication Centre</u> East Jerusalem, Public Opinion Polling of Palestinians by Palestinians	\$8,000
<u>Pacific Institute for Studies i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Security</u> Oakland, CA Policy Recommendations on Water an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7,500
<u>Jerusalem Spinoza Institute</u> Jerusalem, Seminars in Cooperation with the Israeli Army to Explore with Soldiers the Importance of Pluralism in Israel	\$8,000
<u>Jewish Renewal Life Center</u> Philadelphia, PA Strategic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a New-Age Yeshiva	\$5,000
<u>Metivta- A Center for Jewish Wisdom</u> Los Angeles, CA Jewish Spirituality Intensive Workshop in Santa Fe	\$6,000
<u>Project Keshar</u> Evanston, I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Jewish Women in Kiev	\$3,000
<u>Bay Area Council for Soviet Jews</u> San Francisco, CA Linking Jewish Communities in the former USSR with Soviet Jewry Councils in the US, and Hate-Crime Documentation Center in Moscow	\$10,000
<u>Center for Human Rights Advocacy</u> Boulder, CO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for Jews and Others in the Former Soviet Union	\$7,500
<u>The University of New Mexico Latin American Institute</u> Santa Fe, NM Research and Documentation of The Sephardic Legacy in the Southwest	\$7,000
Total for Jewish/Israel	\$123,000
	Grand Total \$362,500

THE MAX AND ANNA
LEVINSON FOUNDATION

1411 PASEO DE PERALTA SANTA FE NM 87501
505 982 3662 FAX 505 982 3665

APPLICATION FORM

Date: _____

Organization Name: _____ Acronym: _____

Project Name: _____

Contact Person: _____ Title: _____

Street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Fax: _____

Amount Requested: \$ _____ Project Budget: \$ _____ Organization Budget: \$ _____

Number of Staff: _____ Date Founded: ____/____/____

Project Description (brief): _____

Have you ever received funds from The Levinson Foundation?: _____

If so, when?: _____ How much?: _____

How did you hear about the Levinson Foundation? _____

Please attach a list of other funding sources, and include the 501(c)3 letter for your organization.

3. 또한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이 원주민에게 직접
적인 혜택이 될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의 요
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나
아가 세계대회는 이 문건에서 예견된 센타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인권
센타가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대회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모든 측면들
특히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한다.

5. 세계대회는 총회가 1994년 1월을 기점으로,
원주민과 공동으로 결정될 행동지향적
인 계획을 포함하는 세계원주민의 국제 10개
년 계획을 선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
적을 위하여 적절한 자발적 신탁기금이 설립
되어야 한다. 그 10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국제연합체제내에 원주민을 위한 상설적 포
럼의 창설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B의 3. 이주노동자

세계대회는 각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보증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대회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사회의 여타 부분 사이에 보다 큰 조화
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창출이 특
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대회는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에 조인, 비준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

C.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

1. 세계대회는 여성들이 모든 인권을 완전
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각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우선과제임을 촉구
한다. 또한 세계대회는 개발과정에서 그 수
행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여성의 통합과 완전
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우 선언 의
제 21의 제24장에서 개진된 지속가능하고 공
평한 발전을 향한 여성을 위한 전세계적 행
동에 관하여 확립된 목표들을 재차 언급한
다.

2.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여성의 인권은
국제연합의 법체계적인 활동의 본류에 통합
되어야 한다. 이 사안들은 관계된 국제연합
기구 및 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체계적으
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 국제연합여성
개발기금(UNIFEM),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기타 국제연합부서들 사이에 협력
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와 목적을 더욱 통합
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
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센타와 여성
지위향상분과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
어야 한다.

3. 특히, 세계대회는 공적 사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희롱, 착취 및 인신매매를
제거하며, 사법운영에서 성별에 근거한 편견
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일정한 전통적
혹은 관습적 관행,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극
단성의 해악적 효과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

D.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는 분쟁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대회는 총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이 그 규정들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근본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도와 강제임신을 포함한 이러한 종류의 모든 침해는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한다.

4. 세계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근절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각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을 서기 2000년까지 보편적으로 비준한다는 목표를 장려한다. 협정에 대한 특히 많은 수의 유보들을 겨냥한 방법과 수단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협정 유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각국은 협정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과 모순되는 유보들을 철회해야 한다.

5. 조약감시기구들은 여성들이 인권과 무차별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행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들도 채택되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준비를 통한 청원권의 도입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50차 회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담당자의 임명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6. 세계대회는 여성들이 그 일생동안 최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968년의 테헤란 선언 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대회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의 맥락 속에서, 세계대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손쉽고 적절한 보건 및 아주 광범위한 가족계획서비스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7. 조약감시기구들은 특정 성별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그 심의와 조사결과들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약감시기구들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지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49차 회기에 인권분야의 보고담당자와 실무단 역시 그렇게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결의(결의 1993/46)를 채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새겨두고 있다. 또한 여성지위향상분과도 다른 국제연합조직체들 특히 국제연합인권센터와 협력하여, 국제연합의 인권활동이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과 관련된 폐습을 포함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겨냥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연합 인권 및 인도주의적 구제인단이 여성에 특유한 인권폐습을 인식하고 취급하며 성별에 근거한 편견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장려되어야 한다.

8. 세계대회는 정부와 지역조직 및 국제조직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향한 여성의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 보고

1. 사업취지

이 사업은 4.19 이후 학생운동의 자랑스런 한 장을 차지하며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서울대학교에서 그간 발생한 수많은 열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열을 기리고 누군가가 기념할 수 있는 상징을 세우는 것은 산자들이 꼭 해내야만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4-5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만, 4.19탑 이외에는 그후 열사 및 희생자들을 공동으로 기념할 대규모 조형물이 없습니다. 주위 환경과도 잘 어울리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울 수 있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선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보다 먼저 재학생들이 일을 시작했으나 모두가 하나되어 나설 수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사업경과

1) 1990년 당시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장이던 고 황인철 변호사가 박종철 기념비를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고 기념비 난립을 염려하여 '서울대에 공동기념비를 추진하자'고 결론을 맺음.

2) 당시 황변호사는 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조완규 당시 서울대 총장 등과 협의. 조완규 당시 총장은 서울대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에 사당을 건립하여 성역화 할 뜻을 피력함. 그러나 곧 황 변호사가 암으로 쓰러진 바, 사업 추진이 중단됨.

3) 그러던 중 1993년 재학생들에 의해 이 계획이 다시 구체화되어 1993년 10월 16일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서울대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관"을 개관함.

4) 학생들은 합동추모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합동추모비 건립계획을 구체화하자는 뜻을 10.16일에 참석한 동문 선배들에게 제의해 동의를 얻었음. 하지만 동문 선배들의 적극적 참여를 추동하지 못해 최근까지 답보상태였음.

5)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뜻있는 동문들의 발의로 94년 1월 8일 프레지던트 호텔 동해식당에서 발기 준비모임을 가진 끝에 기념조형물을 세울 것을 결의함.

3. 사업 일정 및 향후 계획

1) 1994년 1월 14일 "서울대 민주화운동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 준비모임 보고.

2) 1994년 2월말 건립추진위 발기위원회 발족 예정. 이 발기위원회 발족을 준비하는 모임의 대표는 현재 이수성(전서울대 법대 학장)님과 홍성우님(변호사)이 맡고 계심.

3) 1994년 6월 10일 건립추진위 공식 발족 예정.

4) 1994년 10월 전후로 문화행사 개최 예정.

5) 1995년 5월 전후로 문화행사 개최 예정.

6) 1995년 6월 10일 기념조형물 제막 예정.

고문피해사례보고

고문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고문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의 마련, 고문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86년 경찰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도 그 어떤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는 문국진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국진씨는 86년 이후 매년 고문 후유증으로 발병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6월말부터 현재까지 무려 7개월째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지난 10월 13일 향린교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이후 11월 15일 고문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지난 연말에 낸 바 있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내의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의 문제가 단지 문국진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영미씨나 김복영씨의 경우는 문국진씨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앓고 기억상실증까지 걸려 있는 등 한 인간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음에도 어떤 치료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일어난 고문의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지고 고문의 사실을 밝히고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군사정권의 고문만행에 의해 산화하신 지 7년, 우리는 그때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싸웠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후 7년이 지난 오늘에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은 이 땅에서 고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날을 위해 고문 피해자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주위에서 고문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곧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갑시다.

고문방지법을 제정하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라!

민주열사 박종철 제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

대회진행 순서

1부 추모식

1. 개회사 및 운영위원 대표 인사
2. 묵념
3. 열사 약력 및 기념사업보고
4. 추모시
5. 추모사
6. 추모의 노래

2부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 보고 및 기념강연

3부 문국진 고문피해 보고식

주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박종철 열사 약력 보고

1. 1965년 4월 1일 부산에서 아버지 박정기 님과 어머니 정차순 님 사이에서 2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남.
2. 1984년 3월 서울대 인문과학대학 언어학과에 입학. 입학후 언어학과 1학년 대표로 활동.
3. 1985년 서울미문화원 농성지지 사당동 가두시위에서 연행돼 구류처분받음.
4. 1986년 언어학과내 과학회 학회장으로 활약.
5. 1986년 4월 신당동에서 벌어진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지지 가두시위에서 연행돼 구속됨.
6. 1986년 10월 집행유예로 출소. 출소후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그 중 하루 재워준 적이 있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캐려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갖은 고문수사에 대항하다 87년 신년 벽두인 1월 14일 장렬하게 산화함.
9. 1987년 2.7, 3.3을 맞이해 대규모 고문살인규탄 투쟁이 전개됨. 그후 5월 18일 고문진상이 은폐조작되었다는 김승훈 신부의 용기에 찬 폭로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킴.
10.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대항쟁의 불꽃으로 부활함.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 보고

1. 1988년 4월 6일 기독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고 황인철 변호사) 발족을 선언하고, 고문살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을 천명함.
2. 1989년 3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초혼장 발인을 하여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
3. 1989년 11월 7일 민사소송 1심에서 국가배상 판결.
4. 1990년 8월 17일 형사소송 고법에서 강민창 박치원 유정방 박원택 등 4인에 대한 고문진상은폐조작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여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및 서대문 치안본부앞 시위를 전개함.
5. 1991년 12월 대법에서 고법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함으로써 형사재판은 고법으로 되돌아옴.
6. 1993년 1월 20일 황인철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장 암으로 서거(현재 회장 공석중).
7. 1993년 4월 서울고법은 강민창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징역형 선고함. 이로써 형사소송은 완결됨.
8. 1993년 7월 15일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도 배상판결. 여기서 서울고법은 신원권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행위는 국가가 가족 중 일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9. 1994년 1월 고 황인철 변호사의 유지를 잇고, 또 서울대 재학생들의 교내 추모관 개관을 확대발전시켜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을 건립코자 하는 움직임 생겨남.

주모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숫아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친다

차가운 날
한 뼨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땀들,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앓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밟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 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 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 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내게 약속한다
거짓으로 절철된 이 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하리라 빼앗긴 너를 으스스리게 꺼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
이 땅의 착취
끝날 줄 모르는 억압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장내리라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 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 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에서 태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 날
비로소 그 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네게 보내주리라

언어학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박종철 열사에게 바친 시

주모시

열사여, 그 저항과 민중혼으로 다시 살아 오소서!

강병원(제37대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난 80년대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가진 자들의 야만적 폭압보다는 그에 대항했던 선배들의 치열한 저항을 먼저 기억합니다. 폭압에 맞서는 이들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순결한 눈동자와 굳건한 스크림을 기억합니다. 어두운 시대 한점 햇불로 타오르고자 했던 많은 젊음을 기억합니다.

80년 광주, 그 피의 학살로 등극한 전두환의 폭압정치가 극으로 치닫던 87년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문정권, 살인정권 타도!"의 함성으로 전국을 뒤덮었던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의 들불로 열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6.10 항쟁의 거대한 들불을 일으키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역사적 의미보다 열사의 삶 그 자체를 치열하게 가슴 속에 담고자 합니다.

발가벗은 폭력에 대한 알몸의 저항,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정신을 피하지 않고 직립하여 돌파했던 열사의 치열함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는 고문정권의 희생양이 아니라 전체정치에 가장 양심적이고 치열하게 저항했던 투사로 살아와야 합니다.

80년대 저항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보와 통일의 내일을 열어갈 밑거름입니다.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군하였던 그 투혼과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자신감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역사와 민중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통일 조국을 몇년 남기지 않은 지금,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을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열사의 치열함과 동지와 조국에 대한 사랑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위기의 시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기인 지금에 열사의 모습은 민중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억은 단지 한 역사적 시기의 치열했던 생명으로서, 추도의 대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80년대의 치열했던 저항의 불꽃으로서의 열사는 이제 90년대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뿌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중혼이라 일컬어졌던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주검과 투혼은 이제 90년대에 맞게끔 새로운 진보적 저항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력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진보를 일구어나갈 청년학생들의 가슴에 열사는 저항과 민중혼으로 되 살아날 것입니다. 열사의 피와 심장을 양분으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정신을 이땅의 소외받는 민중들 속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열사의 후예들인 우리 후배들이 굳건히 서나갈 것입니다.

1994년 1월 14일

더불어 생각하며

국제화시대 한국 인권의 현주소

어제 우리는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 박종철씨의 일곱번째 기일을 맞았다.

매년 그의 기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은폐된 고문사실을 추적한 양심 세력의 노력이 마침내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의 인권상황은 당시와 비교해 개선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박종철군 일곱번째 기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한해 동안의 몇가지 사례를 들어 인권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게 되고 또한 고무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평가의 기준이다.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과 함께 공권력의 의식변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 평가기준에 틀림없다. "국가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는 인식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먼저 고려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인권상황과 관련한 질문은 이렇게 던져질 수 있다. "고문으로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문으로 죽어간 아들을 화장해 그 재를 강물에 뿌리도록 강압한 경찰당국이 과연 그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고문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양심수는 물론이고 일반범죄 혐의자에게까지도 고문 및 가혹행위가 존속된다고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문국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인정해야만 했고, 진범이 불잡힘으로써 풀려날 수 있었던 어느 경관의 뼈아픈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너무 착잡하게 만든다.

고문은 형벌과는 달리 수사 혐의만을 가지고 가혹행위를 가하는, 그럼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반문명적 행위다.

고문후유증 피해보상 마땅

아직도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법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권과 관련한 인식과 제도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피부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문민정부가 이뤄지고 진정한 신한국이 건설되려면 또 이뤄져야 할 일이 있다. 구 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문국진씨의 이야기가 우리를 울리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구내에 민주화운동 기념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 과거 정권에 희생된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를 발견했다. 의문사는 말 그대로 의문사로 남아 있고 그 희생자는 여전히 억울한 희생자로 잠들어 있다.

무한경쟁 인간성 말살 위험

의문사와 그 희생자들이 여전히 엄존하는 최근 '국제화' '개방화' 따위의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핵심배경이다.

그러나 '국제화' '무한경쟁'이라는 구호의 한 구석에는 어떤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간 경쟁만이 강조되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능력과 심성이 권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회개발이 인간성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 명제가 간과돼 결과적으로 '인간화된 사회'가 아닌 '인간성이 말살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다.

'고문수사' 손해배상 청구

(41/2)
[수원=홍용덕 기자]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가족이 25일 국가를 상대로 1억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9일부터 5일동안 서울 서대문서 형사과 경찰관들한테 물고문·폭행 등 고문수사를 당했으며 살인피의자로 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국회

우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전화 (02)788-2154 / 전송 788-2744

문서번호 의안제 359 호

시행일자 1994. 1.26.

수신 임채정의원

제목 청원서회부통지

'94. 1. 17. 귀 의원의 73인의 소개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
기원빌딩 5층 박정기의 1,287인으로부터 제출된 "고문피해보상대책등에 관한 청원"은
법제사범위원회에서 심시하도록 '94. 1. 26.자로 회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끝.

국회

의

의



국회의장인

1994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4차 대표자 회의

일시: 1994.1.27. 오전 10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1. 평가

- (1) 국회청원 과정에 대한 평가 (국회청원 79-14 = 6390) (2.15 ~ 23.4)
2월 임제 3주 때 정보공개 How
① 허리살은 하나
② 대표자들이 강수권으로 만나려는 문제
관심은 두 모른다.
- (2) 1월14일, 박종철 열사 추모식 평가(보고회 부분만)
 송년의 밤 : 좋았다.

2. 보고

- (1) 문국진씨 상태
- (2) 고문후유증 사례 수집 과정 - 정리된 자료 (교향 5사태 유증 등)

3. 토의안건

- (1) 2월 하순, 고문후유증 문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개최의 건 - 자검정, 이제 모른다
- (2) 청와대등 탄원의 건 - 김영철씨 만나 경은 방방 이복 최연희씨
관제 행위 (청와대에서 듣기) 주제만
- (3) 추가 모금에 대한 건 : 두려움 사안 제출 한 것 도론지 주제만
- (4) 연세대 학생들과의 연대의 건 : 연세대 학생 들과 의 연대 의 건 : 연세대 학생 들과